

표/준/논/단

경북의 혁신엔진, 테크노파크

“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가
바로 '혁신'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말 뿐”이라는 경
구는 그 이유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



경북도지사 이의근
053)950-2006

요즘 우리 사회 최대의 화두는 '혁신'일 것이다. 대기업 CEO에서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변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모두가 세상을 읽는 안목을 기르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열심이다. 하지만, 혁신하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타성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채찍질해야 하고, 낡은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한때 시장을 좌지우지하다가 사라진 수많은 기업들은 왜 '혁신'이 어려운가를 일깨워 준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가 바로 '혁신'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말 뿐”이라는 경구는 그 이유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역사적으로 지속적 혁신을 통해 도약을 이룩한 조직은 많이 있다. 이러한 성공들은 대개 통찰력을 가진 리더와 창의적 인재들의 합작품인 경우가 많다. 거기에 더해 '선외의 경쟁자'가 있다면 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리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서로 경쟁하면서 성공을 만들어낸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구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삼성과 LG는 수 십 년간 서로를 벤치마킹하면서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미국과 구 소련의 우주개발 경쟁은 인간의 달 착륙을 실현시켰다. 최근 우리 경북에도 이처럼 때로는 경쟁하면서, 때로는 서로 협력하면서 지역혁신을 이끌고 있는 기관이 있어 매우 반갑다. 바로 경북

테크노파크와 포항테크노파크이다.

경북테크노파크는 '98년 설립 이후 한국형 테크노파크의 전형으로 자리잡았다. 정부 평가 1위는 도맡아 놓고 한다. 요즘은 사우디 등 외국에서까지 노하우를 얻기 위해 찾아온다니 여간 자랑스러운게 아니다. 입주 기업들의 만족도도 대단히 높다. 수도권에서 이전해 와 급성장하고 있는 한 기업은 ' 옮겨오지 않았으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웠을 것' 이라고 고마워했다. 그만큼 경북테크노파크의 기업지원서비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는가.

조금 늦게 출발한 포항테크노파크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 민간과 지자체의 힘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정부에서도 가능성을 인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여건이 워낙 좋다. 포항테크노파크가 입지하고 있는 연구단지 일대를 한 번이라도 와 본 사람은 ' 바로 이곳이다' 하고 무릎을 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포항공대를 중심으로 방사광가속기, 산업과학연구원 등이 세계적 R&D 성과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주거환경과 교육시설은 선진국이 부럽

지 않을 정도다. 그 속에서 포항테크노파크는 벤처기업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1 단계로 완공한 벤처동이 비좁을 정도라고 하니 포항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은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 임금이 미국 수준으로 올라버린 한국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적으로 공감할 수 밖에 없는 지적이다. 정부가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니겠는가. 목표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작은 규모의 혁신클러스터를 여럿 육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소규모 클러스터가 전국 곳곳에서 빛을 발할 때 우리나라가 혁신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혁신클러스터의 모범으로 발전하고 있는 경북테크노파크와 포항테크노파크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전단